

사형 제비뽑기

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. 로마인 한 명이 살해되었습니다.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. 로마인은 아무 남자나 한 명 잡아 사형시켜야 질서가 생긴다고 여겼습니다.

그래서 한 남자를 잡아 사형시키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.

“너는 하느님을 믿는다. 네가 믿는 하느님이 너를 살려 주는지 시험해 보고 싶다. 이 항아리에는 제비 둘이 들어 있다. 하나는 ‘사형’이고 다른 하나는 ‘사형 면제’다. 자! 뽑아라. 제비 뽑히는 대로 한다.”

그런데 사실은 두 제비 다 사형이었습니다.

장난하는 것이었습니다. 지혜로운 유대인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았습니다.

그는 하느님께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. 하느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.

그는 빨리 한 장을 집어 입에 넣고 씹어 먹어 버렸습니다.

로마인이 놀라 물었습니다.

“그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알아?”

유대인이 말했습니다

“간단합니다. 저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면 제가 집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.”

유대인은 살아났습니다.